“전법교화와 행복 구현에 역량 집중”

천태종 제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 취임법회

4월 11일 구인사 광명전 1만여 사부대중 참석

단양 구인사=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천태종은 4월 11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 법당서 1만 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제18대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사진 왼쪽〉은 1951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났으며, 1971년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구인사에 입산해 1975년 남대충 대종사를 계사로 수계, 득도했다. 재무부장 · 사회부장 · 총무부장 · 종정사서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대전 삼문사 · 대구 대성사 · 울산 정광사 등 여러 사찰의 주지를 맡아 불사와 전법교화에 앞장섰다. 1985년 천태종 제8대 종의회의원을 시작으로 제15대까지 의원 활동을 하였고, 2015년에는 종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2017년 4월에는 천태종 원로의원에 임명되었으며, 지난 3월 19일 종헌종법에 따라 종정 도용 스님으로부터 제18대 총무원장으로 지명받았다.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전법 교화와 함께, 시대적 가치와 행복을 구현하는 일에도 종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효율적 종무 행정을 위한 제도의 정비 보완과 함께 시대적 사명 구현을 위해서도 지킬 것과 쇄신할 것을 명철히 판단해 종단 안팎을 두루 살펴 나가도록 하겠다.”

대한불교천태종 제18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문덕 스님은 강경한 어조로 앞으로 펼칠 종무행정 계획을 이같이 피력했다. 천태종은 4월 11일 오전 11시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 법당서 1만 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 이임법회와 함께 열린 이날 법회에서 법상에 오른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큰 뜻을 받들어 앞장서서 원을 세워 정법의 기치 휘날리며 정성 다해 한층 한층 탑을 쌓듯 거룩한 불사 원만하게 성취했으니, 그 노고가 참으로 장하구나”라며 “수승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천태 일승 묘법 세상에 두루 펴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오르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취임사에서 “천태종의 오랜 역사성과 정체성 위에서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행 정진과 전법교화에 매진하는 것이 천태종단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며 “전법교화와 함께 시대적 가치와 행복을 구현하는 일에 종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춘광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은 저에게 더없이 귀한 정진의 시간이었고 제불보살님과 종단의 은덕을 갚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제 방사(坊舍)로 돌아가 그 사무쳐 깨우친 바를 더욱 절차탁마하여 안분(安分)을 수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 4년의 회고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불교계 안팎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설정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회장 회성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문덕 스님은 오랜 수행력과 덕망으로 우리 사회에 애국불교 · 생활불교 · 대중불교의 지표를 넓게 실현하실 것이다”고 격려했다.

해외에서도 이날 법회를 축하하는 축전이 줄을 이었다. 먼저 중국불교협회장 학성 스님과 일본 천태종종무총장 도다 도유 스님,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우죠 스님, 일본 예산학원장 사카모토 코바쿠 스님도 전문을 통해 축하했다.

이날 법회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하승창 청와대사회혁신수석,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헌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철호 단양부군수, 엄재창 충북도의회 부의장,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한 법회는 △상월원각대조사 법어(감사원장 진덕 스님) △고불문(종의회 부의장 세운 스님) △종정예하 법어 △제17대 변춘광 스님의 이임사 △제18대 총무원장 수행이력 소개 △취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모든 중생, 함께 가자!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한달여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 봉축등이 걸렸다. 올해는 ‘함께가자! 우리’로 조계사 측은 남과 북의 평화공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성평등,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 같은 표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우리 사회에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원해 본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서 장애인 정기법회부터 개설을”

‘250만 장애인 시대, 불교는’ ② 장애인 신행모임 활성화 과제

장애인의날을 맞아 본지가 전국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 내 장애인 신행모임을 조사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신행모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장애인 신행모임 구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정기법회부터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림사에서 장애인 신행모임을 운영중인 연화회 대표 해성 스님은 “장애인들의 신행활동은 결국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에서부터 시작한다”며 광림사 사례를 소개했다.

광림사의 경우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공동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성 스님은 “초창기 일반신도님들이 걱정을 했다. 장애인들이 오면 서로 힘들 것이란 우려에서였다”며 “하지만 몇 번 함께 법회를 보다보니 교류가 잦아지고, 이제는 함께 신행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해성 스님은 이어 “장애인불자들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매번 다니던 사찰만 다니려고 한다. 시각장애인불자들과 갓바위 순례를 가려고 하니 오히려 걱정을 했다”며 “가까운 사찰에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사찰에서 이들을 신도로 적극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은 불교계 장애인 특수학교 조차 전무한데서 드러난다. 장애인들이 불교관련 교육을 받을 공간도 없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장애인 이동문제 개선 △지역별 거점 사찰 지원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 △장애인 안내 포교사 등 인적 활용 △권역별 장애인불자회 구축 등 과제를 들었다.

도륜 스님은 “먼저 사찰에 신행모임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사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원활한 사찰을 중심으로 정기법회를 개설하고, 거점사찰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사찰을 거점으로 지정하기 힘들다면 장애인복지관 업무 후 대관하여 불자장애인들이 복지관 시설에서 그대로 법회를 보는 방법도 있다. 경전 연구 및 독송모임 등 신행공동체는 장소만 있다면 어디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전법단의 경우 현재 15명의 지도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불교계 장애인복지관 관장들이다.

도륜 스님은 “복지관 관장들은 지역에 흩어져 모이는데 애로점이 있다. 장애인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위해서는 결국 장애인불자회와 같은 모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불교계가 권역별 장애인불자회 구성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청와대 미남불’ 보물 지정됐다

문화재청 12일 결정… “독창적 통일신라 조각”

청와대 미남불로 잘 알려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4월 12일 열린 제3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77호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1974년 1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지만, 부처의 머리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라는 특수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 이번 보물 지정으로 그간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연구와 제도적으로 보호 ·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조성 시기는 9세기경이며, 편단우견(偏袒右肩)을 걸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모습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다. 특히 사각형 대좌는 같은 시기 불상 중에는 사례가 거의 없어 독창적인 면모가 돋보인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1913년경 경주에서 일제에 의해 반출돼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倭城臺)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옮겨졌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과정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 불성을 믿어라

법회에서 활용하는 인성교육

공생,공심으로 생활속에서 수행하기

▶ 고정관념을 깨다! - 마음의 주인 되기
▶ 지혜를 계발하다! - 마음은 무한 에너지
▶ 자비심을 키우다! - 우리는 생명 공동체

일 정 : 2018년 6월 8일 (金) ~ 10 일 (日)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 (충남 공주 소재)
정 원 : 3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edu.hansi.org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